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 신안갯벌 방문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호 등 자문
신안 국제철새 심포지엄 참석
습지 복원 성공 사례·경험 공유



매년 3만 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신안 입해도 갯벌.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오는 30일부터 11월3일까지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RSPB) 소속 전문가들이 신안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1889년 설립된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The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는 회원 수가 120만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철새와 서식지 보호 환경단체로 200개 이상의 자연보호구역을 소유하고 복원·관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넓적부리도요 등 멸종에 직면한 종들의 복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동대서양 철새 이동경로(East Atlantic Flyway)에 포함된 영국 동부 연안습지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전문가 단체다.

이번 신안군을 방문하는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 소속 방문단은 생태부 책임자인 줄리안 에반스(Julianne Evans), 영국 동부연안 습지 프로그램 매니저인 제프 큐(Jeff Kew), 노퍽 & 링컨셔 지역 책임자인 스티브 로랜드(Steve Rowland) 등 전문가 3명이다.

지난해 10월 신안군에 유치 확정된 국립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 대상지와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 신안갯벌을 둘러보고 심층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또 11월2일 개최되는 '2023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에 참석해 습지 복원에 관한 성공 사례와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100km²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군은 2022년 10월에 해양수산부 공모를 거쳐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기구인

국비 320억 원 규모의 '국립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유치했다. 보전원은 신안 입해습에 연구 시설과 체험시설,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장소, 대강당, 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해외 전문가 방문이 세계자연유산 신안갯벌의 보전관리와 국립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의 성공적인 건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재생에너지 최적지 진도로 오세요

해상풍력 발전사 간담회

진도군이 신재생에너지 최적지를 자임하며 투자유치에 나섰다.

진도군은 지난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해상풍력 발전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허가업체와 계획기 설치 업체 등의 관련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진도는 해상풍속이 7.5m/s로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고 풍력, 태양광, 조류 등의 신재생에너지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진도군은 해상풍력 발전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하고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발전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수용성 공동 대응과 해상교통 안전진단, 부족한 전력계 연결을 위해 '한전 공동접속 설비 선(先)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군, 법성포 굴비거리 음식점 맞춤형 상담

영광군이 법성포 굴비거리 음식점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벌이고 있다.

법성면 법성포 굴비거리 '맞춤형 컨설팅'은 전남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지역에 조성된 남도음식거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특색 있는 음식과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식 전문가가 두 차례 음식점을 찾아가 '맞춤형 경영 진단'과 '홍보 상담' '위생·진철 교육' '음식·상차림 개발' 등을 돕는다.

강중만 영광군수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단순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음식점주들이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하나로 경영 교육을 받고 있다. <영광군 제공>

한 맛집이 아니라 청결과 친절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영광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관광지로 품격 있는 법성포 굴비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시내버스 시민공론화위 참여단 구성

노선 개편·공영화 등 토의

목포시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시민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을 최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목포시는 공모를 통해 시민참여단 50명과 예비인원 10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된 공개 모집에서는 시민 24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시내버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3일 다섯 번째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을 최종 공개 선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참여자를 교통수단, 성별, 나이 등으로 분류해 시민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어 숫자가 적힌 공을 무작위 추첨해 시민참여단 50명, 예비인원 10명을 뽑았다.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첨 과정은 시민 대표 참관 아래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28일 모임을 한 뒤 세 차례에 걸쳐 토론회한다.

시민 토론회에서는 노선체계 개편, 운영체계 확립, 노선 공영화 등의 핵심의제에 대한 분임 토의·발표를 한다.

선호조사와 지지안 발표 등을 거친 뒤 의견안을 작성해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사전 모임과 시민 토론회 3회 모두 유튜브 생중계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으로부터 전달된 의견을 접수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견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마련, 오는 12월8일까지 목포시에 전달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군 11월 문 여는 치유센터 인근 해양치유 중심지 구축

전남도 공모 선정 100억원 확보
힐링 풀 하우스·어싱길 등 조성



완도군이 '2024년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신지면 해양치유센터(11월 중순 개관)를 중심으로 해양치유 중심지를 구축한다. 표시된 곳은 사업 대상지. <완도군 제공>

다음달 개관하는 완도군 해양치유센터(신지면)를 중심으로 전남 해양치유 중심지가 구축된다.

완도군은 전남도 '2024년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III단계)' 공모에 '힐링해(海) 완도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되면서 완도군은 도비 5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 공모사업은 전남도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 사업을 육성·지원한다.

완도군은 오는 11월 중순 문 여는 신지면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인근에 체류형 시설을 확충해 해양치유 중심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지 명사십리 1주차장에는 필로티(말뚝) 건축 방식의 '힐링 풀 하우스'를 건립한다.

이곳에서는 음식을 활용한 치유 요법 체험을 한다.

오래된 자동차 야영장을 카라반·글램핑장으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객도 유입할 계획이다. 야시장과 LED 조명 전시 공간도 꾸려 야간 볼거리를 확충한다.

해양치유센터 인근 숲에서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어싱(Earting) 산책로'를 만든다.

숲속 도서관과 힐링 쉼터 등도 조성한다.

완도군은 매달 '해양치유의 날'을 정해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해변을 걷는 '플로깅'도 운영할 예정이다.

완도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힐링해(海) 버스, 철도 여행'이라는 교통 연계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완도군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 사업 계획을 구체

화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해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많은 사람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완도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완도가 해양치유와 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m² (296.14평)

■ 건물 : 323.86m²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